

# 국내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장 수 영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대외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학이 사법고시 준비장과 취업 준비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대생 중에서도 사법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할 점이다.

**우** 리나라는 지난 25년 동안에 대학의 엄청난 양적 팽창을 가져와서 인구비례로 세계에서 가장 대학생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1973년에 비하여 1997년에는 전문대학생수가 17.5배, 대학생수가 7.7배, 대학원생수가 14.8배 등 평균 9.3배의 증가를 보였다. 대학의 수는 1986년에 112개였던 것이 지금 191개로 늘어났다. 거기에 따른 교수의 증원, 실험실습 설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질적으로는 향상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능력은 많이 향상되어서 과학잡지인용지수(SCI) 논문발표는 1989년에 1,300편이던 것이 1996년에는 7,295편으로 증가되어 이스라엘, 대만에 이어 세계 19위가 되었다. 그러나 인구 1인당으로는 아직 세계 36위에 머물고 있

다. 7,295편 중에서 대학이 발표한 편수가 83%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사용하는 연구비에 비해서는 대학이 기업이나 연구소보다는 논문을 많이 발표함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순위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순이다.

SCI는 주로 자연과학과 의학분야 잡지가 많은데 공학분야의 공학인용지수(Engineering Index) 국가별 게재 논문수를 보면, 97년 9월 기준으로 미국 56,824편, 일본 18,563편, 중국 10,087편, 영국 4,489편, 대만 3,594편, 한국 3,313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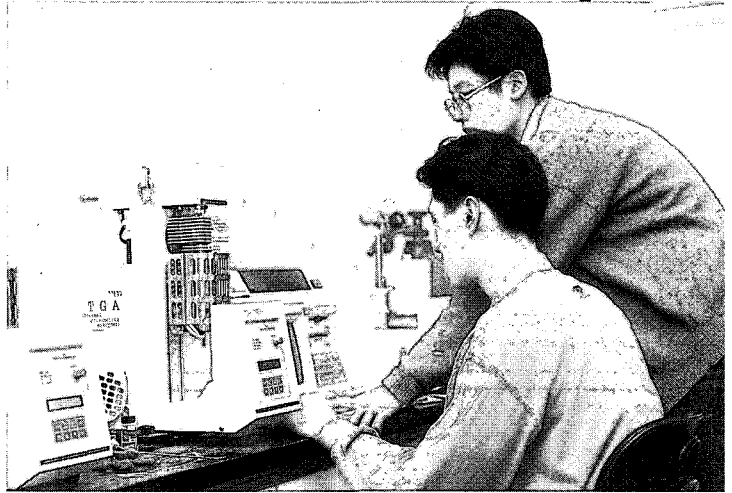
또한 1992년부터 시작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전국대학 학과평가와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는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지금

까지 67개의 대학이 종합평가를 받았다. 그뿐 아니라 한국과학재단에서 선정하는 우수공학연구센터(ERC), 우수과학연구센터(SR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도 59개나 되어서 이공계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사가 1994년부터 매년 대학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대학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93년에는 8개의 대학이 국책공대로 선정되었고, 1995년에는 5개 대학이 국책대학원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9개 대학이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28개 대학이 지방대학 특성화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20개 대학에 정보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선별적 지원이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많지 않은 예산을 균등 배분한다면 몇 개의 대학만이라도 국제경쟁력 있도록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에는 2,244개의 4년제 대학이 있지만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대학은 229개교이며, 그 중에서 115개교를 우수한 대학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연구비는 이들 115개교가 받게되며 그중에서 상위 50위 정도의 대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IMF 금융위기 때문에 대부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학정원은 계속 늘고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줄어들어서 2003년에는 정원이 졸업생보다 더 많아지게 되므로 상당수의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서울 지역의 대학들이 편입생을 대거 모집함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학생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 보충은 전문대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대학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정원만 늘려온 폐단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무리한 學部制 중용으로 순수 학문분야는 학생수가 격감하고 있다. 미국 처럼 의학, 법학, 경영학, 행정학 등을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에서 전공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에서 전공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학부제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1992년에 필자가 학부제를 주장한 것은 유사학과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외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학이 사법고시 준비장과 취업 준비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대생 중에서도 사법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할 점이다. 물론 공대 졸업생들이 제대로 졸업을 한 후 법학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을 논할 수 있는 대학은 불과 몇 개에 불과하며, 우선 교수들이 각성해야 하며 직원들은 자신들의 권익보다 대학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영할 일이지만 공대 재학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공학은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사법고시제도를 조속히 개혁해서 법과대학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응시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교수의 동종번식(inbreeding)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 남아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되는 방식은 학문적 우물안 개구리를 기르는 첩경이다. 타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가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후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택해야하며 이와 같은 문제는 대학원진학 때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을 논할 수 있는 대학은 불과 몇 개에 불과하며, 우선 교수들이 각성해야 되며 직원들은 자신들의 권익보다 대학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작년 1년 동안에 미국의 대학들이 독지가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무려 1,500억 불이라고 하며 이 금액은 우리나라 외채 총액과 같은 액수이다. 정부의 예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사회에서도 부유층이 대학에 기부하는 풍조가 조속히 확산되어야 하겠다.

최근 많은 지방대학에서 학생수가 급격

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IMF구제금융시대에 휴학생이 늘고 서울소재 대학에 편입학하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동결되고 학생 수는 줄고 있으니 위기를 느끼는 대학이 많다. 정부에서는 매년 대학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차차 감소해서 2003년에는 대학과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입학을 원하는 학생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금년 대학졸업생들은 엄청난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다. 입학정원을 늘리면 국민들의 대학교육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졸업생들을 전문분야에 취업시키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입학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유보하고 서울소재 대학들의 편입시험도 당분간 중지하면 지방소재 대학들도 재정형편이 호전될 것이다.

또한 같은 도시에 있는 비슷한 사립대학들은 학과교환(Big Deal)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독일통일전 동베르린에는 Humboldt대학, 서베르린에는 베르린자유대학과 베르린공대가 있었는데, 통일 후 Humboldt에 있는 일부 공학계열학과를 베르린공대에 합치고 그대신 베르린공대의 인문계학과를 Humboldt대학으로 합친 예가 있다. 미국에서도 70년대 초에 New York University에 있던 공과대학을 Brooklyn Polytechnic Institute에 통합시켜서 Polytechnic Institute of New York (현재는 The Polytechnic University)으로 개편한 일이 있었다. 사립대학교수들은 모두 사학연금재단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학을 옮겨가도 연금에는 지장이 없다. 아마 2~3년 후에는 이것만이 대학이 살아남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